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활용*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Mothers Attending a Zoom-based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Using the Bible story about Social-emotional Character

마은희 (Eunhee M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mothers who participated in Zoom-based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three mothers who attended a discipleship program at a church in Gyeonggi-do. The discipleship program for children used 9 Bible stories about social-emotional character. The program took place over 28 weeks.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Zoom recordings and in-depth interviews. The mothers in the study described their experiences. There were “doubts about the possibility of discipleship training”, “positive relationships built on words of blessing and skinship”, “disappointment from incomplete worship”. And described the child's experience. There were ‘time for children to have fun’, ‘Christian education in natural daily life’, ‘increased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activities that cannot be done with friends’. This discussion focused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family and the Christian social-emotional character discipleship program.

Key words: Christian social-emotional character,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picture books of Bible stories, Zoom-based, post corona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2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평생교육원 조교수,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maeh@csu.ac.kr

I. 서론

유아기는 신앙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성장한 이후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영적 발달과 전인 발달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정희정·김남임, 2013 ; 정희영·진명선, 2017). 우리나라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기관중심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며, 유아교육기관과 교회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중심이 되어 왔다(강용원, 2013 ; 권미량·하연희·계영희 2018). 교회 중심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발달 특성에 근거하여 부서를 더욱 세분화하였으며,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전문성을 더해가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변화를 겪으며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라는 역할에 있어 위기를 맞이하였다.

2020년 3월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대응으로 종교 시설 등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행정 명령을 시작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는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부모들이 감염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의 교회출석을 꺼렸기 때문에 영·유아부의 예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조혜정, 2020).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도 더욱 두드러져, 청년들의 80% 이상이 10년 뒤에 신앙은 유지하더라도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다(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30-40대의 대면 예배 참여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 부모와 아이 모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속화된 교회학교의 쇠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성인 예배는 70% 이상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교회학교의 예배회복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0),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 교육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감염병 확산에 민감해졌으며, 언젠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대면 예배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생률의 감소라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2030년 이후 교회 교육부서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http://gdknews.kr/news/view.php?no=11870>).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가족 중심 예배와 가정의 신앙교육 기능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기독교교육의 허브로서 교회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기능(신명기 6:4-9)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김정준, 2021 ; 박은호, 2023 ; 정희정, 2020 ; 이광수·함영주, 2018: 206-207). 일부 교회는 부서 중심 예배에서 세대를 통합하는 가족 중심 예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46>). 이는 예배의 교육적 기능과

더불어 가정의 교육적 역할 증진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는 유아의 가정 내에서 예배와 기도, 교육과 교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박은호, 2023 ; 마은희 외, 2020). 그러므로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패러다임은 교회가 가정의 역할과 부모의 신앙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출석하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와 교육, 교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꺼리는 유아와 부모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교회는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독교 유아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로 예배 참여율이 낮은 젊은 부모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도들은 이미 예배와 교육, 교제에서 대면이 아닌 소통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익숙해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 청년들은 교제와 성경공부, 예배 등에 있어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높은 만족도(77%)를 보였다(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코로나 이후 현재에도 구역예배 등의 소그룹 모임, 심지어 심방까지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회들이 등장하며, 교회의 교육과 예배 회복을 위한 제안으로 ‘하이브리드(hybrid)’ 예배, ‘올라인(all-line)’ 예배,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박노선, 함영주, 2023 ;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805/4813>). 물론 이러한 대안적 사례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감격과 직접적 접촉을 통한 교제의 질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온택트(On-tact)’가 익숙해진 현재의 시점에서 예배와 교육, 교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 놓자는 의미이다.

유아와 가정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의 활용을 제안한다. 화상회의 플랫폼은 컴퓨터 없이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물리적인 이동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남이 가능하고, 참여자의 일상적 공간에서 가상공간에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통 외에 즉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동후, 2021 ; Ebner and Press, 2020). 그러므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부모지원과 더불어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강성국 외, 2020 ; Takeuchi, 2011). 유아에게 영상이나 놀잇감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될 때 교육의 효과가 더욱 컸다는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결과(이미정·신지연, 2020)를 통해 유아의 신앙교육에도 부모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화상회의 플랫폼은 유아의 가정들이 모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인 동시에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가상공간 뒤에

개인이 속한 가정과 가족이 있다는 점에서 유아와 가정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아와 젊은 세대 부모의 교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유아와 가정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강조점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살아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할까?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내용은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을 함양한 미래사회의 리더십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회 교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인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른 인성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인성은 인간이 사회관계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능력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 인성교육진흥법, 2014). 유아기의 인성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및 배려,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인 사회정서 능력을 포함한다.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사회정서 발달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이다(김남임, 허계형, 2015).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의 발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독교적 정서조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이웃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은 문제해결 역량 개발을 통해 가능하다. 즉,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회정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허계형, 2020).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교육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발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교육의 근거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딤후 3:15-17)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독교적 인성을 겸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정희영 외, 2014). 제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Rushdoony, 2007: 55).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언어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준다면 어린 유아라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정희영, 2010: 204).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료이다. 앞선 연구들은 성경이야기를 유아가 선호하는 오감놀이(이지영·이유나, 2016)와 극놀이(오영희·정미, 2009) 등으로 제시한다면 기독교적 개념의 형성과 신앙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성경이야기에 토대를 둔 다양한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정해·신인숙, 2011 ; 박수진·김미경, 2013 ; 송영란·오영희, 2006 ; 오영희·정미, 2009), 유아의 인성발달의 적절한 도구가 된다(김

성원·신현정, 2018).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유아가 성경이야기를 발달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하게 경험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다(마태복음 28:19-20). 유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것은 유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 교육의 위기와 더불어 다음 세대로의 신앙 계승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유아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허브가 되어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고 신앙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가정과 소통하고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대안 중 하나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에 기반을 둔 방법을 제시하고, 제자 훈련의 내용으로는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여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기독교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가정 연계 온라인 지원체계 마련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환경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 곳은 경기도 소재 중소도시의 소형교회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아부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의 실행자는 담임목사 사모로 유아교육, 기독교교육,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유치부 교육전도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의 현장 실무 경력이 있다. 제

자훈련에 참여한 유아는 만 2세 여아 2명, 만 3세 여아 1명, 만 4세 남아 1명, 만 5세 남아 1명, 만 6세 여아 1명으로 총 6명이다. 유아의 부모는 실행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신앙경력 3년 미만으로 교회 내 직분은 없는 부모 5명, 또한 20년 이상 신앙경력의 부모 4명,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어머니 1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8주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 23주 이상 출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3명의 어머니이다. 유아 3명의 이름은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로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제자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유아(가명)	연령	성별	어머니			아버지		
			연령	신앙경력	직분	연령	신앙경력	직분
화평이	4세	남	30대	3년 미만	성도	30대	10년 이상	성도
총만이	5세	남						
기쁨이	2세	여	20대	없음		30대	모태신앙	성도
사랑이*	2세	여	40대	3년 미만	성도	40대	3년 미만	성도
믿음이*	3세	여	30대	20년이상	성도	30대	20년이상	성도
소망이*	6세	여	30대	20년이상	집사	30대	20년이상	집사

* 유아의 어머니는 연구 대상

2.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허계형 외 글, 정양권 그림, 2021)은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모형에 기초한 9편의 성경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발달 모형은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 인재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정서 발달, 예수님의 성품 함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십 역량을 목표로 한다(허계형, 2020: 28).

1-2과의 핵심요소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이해를 핵심역량으로 한다. 1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창 1:26-31)’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인간의 타락, 구원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2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마 8:23-27; 막 4:35-41; 요 14:15-18,26)’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

3-6과의 핵심요소는 ‘기독교 정서발달’로 기독교적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을 핵심역량으

로 한다. 3과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감정이야기(눅 5:4-11; 마 14:22-33; 눅 22:54-62; 요 21:15-17)’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베드로가 느꼈던 실망, 기쁨, 두려움, 놀람, 믿음, 부끄러움, 후회, 슬픔,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소개한다. 다양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눅 15:1-7; 마 18:12-14)’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공감하도록 지원한다. 5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야기(삼상 17:57-18:5)’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의 용기와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을 헤치지 않는 다윗을 소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서를 바르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서를 조절하도록 지원한다. 6과 ‘거북이 터커의 사랑연습(엡 4:26-27)’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분노조절을 연습할 수 있도록 거북이 터커의 4단계 기술을 소개하는 창작이야기이다. 거북이 터커의 4단계 기술은 1단계: 화가 났음을 인식하기, 2단계: 생각과 행동을 멈추기, 3단계: 등껍질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4단계: 진정이 되면 나오기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화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여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9과의 핵심요소는 ‘기독교 사회성 발달’과 ‘기독교 미래사회 리더십’으로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 친사회성, 의사소통, 예수님 성품기반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을 핵심역량으로 한다. 7과 ‘친구가 된 요나단과 다윗(삼상 17:57-18:5)’은 친구의 개념을 알고,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눅 19:1-10)’은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되자고 먼저 다가가고 친구가 되기를 청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9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요 13:34-35; 마 28:18-20)’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소개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슈퍼친구’가 되도록 지원한다.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유아가 각 과가 시작되는 첫 주에 성경이야기를 듣고 3주 동안의 성경이야기 관련 활동을 통해 성경이야기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28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많은 활동 자료는 서적을 참고할 수 있다(허계형 외, 2021). 전체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2>과 같으며, [그림1]은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예시이다. 제자훈련에 불참한 유아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영상은 QR코드로 제시하였다.

<표2>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요소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핵심역량	성경이야기	활동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해	1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 1:26-31)	오리엔테이션, 1과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꾸미기(1-3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꾸미기(4-7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기	
기독교 정서발달	기독교적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	2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 8:23-27; 막 4:35-41; 요 14:15-18,26)	스크래치 종이에 파도치는 바다 그리기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바다 그리기
		이불 뱃놀이	
		3과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감정이야기 (눅 5:4-11; 마14:22-33; 눅 22:54-62; 요 21:15-17)	베드로의 감정 책 만들기
4과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눅 15:1-7; 마 18:12-14)	베드로의 물고기 낚시놀이		
	식빵 얼굴표정 꾸미기		
	5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야기 (삼상 17:57-18:5)	푸른 풀밭 꾸미기	
6과 거북이 터커의 사랑 연습 (엡 4:26-27)	양 모양 책갈피 만들기		
	팝콘으로 양 만들기		
	다윗과 골리앗 머리띠 만들기, 역할놀이		
7과 친구가 된 요나단과 다윗 (삼상 17:57-18:5)	기도 손 만들기		
	감정온도계 만들기		
	8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눅 19:1-10)	거북이 터커의 감정조절 카드 만들기	
9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요 13:34-35; 마28:18-20)	거북이 장갑 인형놀이		
	감정을 조절하는 나만의 공간 만들기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만들기		
기독교 사회성 발달, 미래사회 리더십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 친사회성, 의사소통, 예수님의 성품기반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7과 친구가 된 요나단과 다윗 (삼상 17:57-18:5)	짜꿍 목걸이 만들기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
		8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눅 19:1-10)	삭개오의 얼굴 표정 만들기
예수님과 삭개오의 식탁 꾸미기			
9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요 13:34-35; 마28:18-20)	나랑 같이 놀자 역할놀이		
	슈퍼친구 막대인형 놀이		
	슈퍼친구 팔찌 만들기		
		슈퍼친구 망토 만들기,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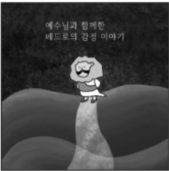
사회정서인성 요소

기독교 정서발달



사회정서인성 역량


기독교적 정서이해



3과 예수님과 함께 한 베드로 감정 이야기

-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신 하나님
-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감정 인식하기


활동 1. 베드로의 감정 책 만들기
 활동 2. 베드로의 물고기 낚시놀이
 활동 3. 식빵 얼굴표정 꾸미기



4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
- 예수님의 마음 공감하기

활동 1. 푸른 풀밭 꾸미기
 활동 2. 양 모양 책갈피 만들기
 활동 3. 팝콘으로 양 만들기



출처: <https://m.blog.naver.com/osanzip/222339389335>

[그림 1]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예시

3. 연구절차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유아 제자훈련은 2021년 3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28주 동안 실시되었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의 실행절차는 모집 및 준비, 제자훈련 실행, 실행내용 공유의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모집 및 준비 단계에서는 광고를 통한 홍보와 성경이야기 그림책 보내기, 실행의 단계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연습과 제자훈련 실행, 실행 공유 단계는 활동 자료의 편집과 SNS를 통한 공유로 이루어진다. 실행절차는 [그림 2]와 같다.

1단계: 모집 및 준비 실행 전 1개월	2단계: 제자훈련 실행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40분)	3단계: 실행 공유 실행 후 일주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시간 광고 · 교회 블로그, 카카오톡 홍보 · 교회의 관심 유도 · 개별 연락 · 성경이야기 그림책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연습 · 활동 자료 배송 및 안부 전하기 · 성경이야기 동영상 · 관련 활동 및 놀이 · 기도 · 자녀 축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피드백 · 유아의 활동사진 및 결과물 게시 · 활동 내용 편집 · 카카오톡 게시 · 교회 블로그 업로드 · 교인들과 공유

2024. 3

217



[그림 2]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제자 훈련의 실행절차

모집 및 준비는 예배시간 광고, 교회 블로그와 교인 카카오톡에 홍보, 개별 연락, 성경이야기 그림책 전달로 이루어졌다.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을 앞두고 교회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였다. 교회 주부와 공적 예배시간, 교회의 블로그, 교인들 단톡방에 목회계획으로 유아 제자훈련을 실행할 예정임을 1개월 이상 광고하여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를 유도하였다. 또한 유아의 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를 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부모가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점을 감안하여 모임이 가능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정하였다. 제자훈련 시작 1주일 전에 단톡방을 만들 것이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단톡방을 개설하였으며, 단톡방에서는 서로 인사나누기, 모임시간 조율, 필요한 사항 전달이 이루어졌다. 모임 시간은 조율과정을 거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로 결정하였다. 성경이야기는 택배, 직접 방문, 문고리 전달의 방식으로 배송하였다.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의 실행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약 30-40분간 이루어졌다. 제자훈련이 시작되기 3일 전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위해 개별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연습을 하였다. 연습을 통해 유아와 인사를 나누고 마이크와 영상 등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다. 2일 전 성경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PPT에 성경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입히고, 찬양을 배경 음악으로 넣어 재생이 가능한 영상을 준비하였다. 유아가 친숙한 목소리로 성경이야기를 듣도록 진행자가 제작하였다. 각과별 활동 자료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각 가정으로 택배, 직접 방문, 문고리 전달 방식으로 배송하고, 단톡방과 개인톡에 안부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1일전 실시간 화상회의의 링크를 제공하였다.

제자훈련은 동영상으로 제작된 성경이야기 듣기, 성경이야기 관련 활동 및 놀이, 기도, 자녀 축복 하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아는 동영상으로 제작된 성경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함께 읽고, 진행자는 동영상을 재생한 이후 성경이야기의 내용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였다. 성경이야기 관련 활동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놀이로 접근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1주에 한 가지씩 3개의 활동을 3주 동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여한 유아의 연령이 다양하여 연령이 낮은 유아의 경우 미리 오리거나 스티커 작업을 해서 보냈으며, 연령이 높은 유아는 경우 스스로 오리거나 그리기, 글씨로 적어보기 등을 추가하였다.

유아의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는 접속부터 마무리까지 유아를 지원하는 역할로 참여한다. 부모는 유아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고, 함께 경청하고 반응하며 유아와 상호작용을 한다. 가상공간에 있는 진행자를 대신하여 부모는 유아의 직접적인 놀이의 대상자가 되고 신체적 접촉과 모델링, 언어적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진행자는 제자훈련 중 부모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호작용 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라고 제안하여 부모로 하여금 유아와 함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며 유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연령이 높은 유아는 스스로 글을 써보거나 시범 보이기, 느낌 말하기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연령이 어린 유아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여 안내하였다. 제자훈련은 기도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된다. 부모와 유아가 함께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를 마친 후 유아가 온라인 공간에 함께 있는 친구에게 하트, 엄지척 등을 날리며,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으로 부모는 ‘OO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OO아 사랑해!’,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단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거나 안아 준다.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놀이와 활동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신앙성장과 부모의 신앙적 양육기능을 회복하도록 온라인 지원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활용하였다.

유아 제자훈련 실행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교회공동체의 교제를 위하여 제자훈련의 내용을 교인들과 공유하였다. 제자훈련 실행 후에는 단체톡과 개별톡을 활용하여 격려 메시지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낸 후 활동사진 및 결과물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했다. 실행 다음 날은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영상에 성경이야기와 활동의 방법을 안내하는 자막을 추가하여 제자 훈련에 불참한 유아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 훈련 편집 동영상은 실행 후 일주일 이내에 교인의 단톡방과 교회 블로그에 업로드 하여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유아와 부모를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Creswell(2012)과 김영천(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참여한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와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내용 중 부모님의 질문이나 반응 등은 별도로 기록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 어머니들의 반응과 질문 등에 대해서는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저자들과 협의하여 연구자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어머니에 대한 심층면담은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총 28주 중 23주 이상 출석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 사랑이 어머니는 총 76분, 믿음이는 어머니 총 83분, 소망이는 어머니 52분 전화 통화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4용지 40장의 분량으로 전사하였으며,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의미를 찾아 주제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전사 자료와 분석 자료는 면담에 참여 어머니 3명에게 재차 확인하도록 하여 의도의 명확성을 검토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면담자료의 분석과정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도사 1인과 성경이야기 그림책의 저자 중 1인이 연구자와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III. 연구결과

1.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는 부담감과 의구심을 함께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남음을 표현하였다.

(1) 유아부 예배의 대안이지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부담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참여 초기에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과 유아에게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제자훈련이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며 의구심을 가졌다.

믿음이에게 죄책감이 덜해졌어요. 제가 5-6살 때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문에 저나 남편도 직장에 가야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야해서 교회도 못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 때 듣는 거랑 아주 어릴 때 듣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줌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잘 안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회사에서 회의를 해 보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전달이 잘 안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잠깐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9. 27. 믿음의 어머니 심층면담)

처음에는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2년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불안해 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신청했어요. 그래도 예배가 될까하고 생각했어요. (10. 2. 소망의 어머니 심층면담)

사실 아이가 태블릿 PC도 많이 접하고 TV도 많이 노출되어서 염려했었는데... 학습지를 태블릿으로 하는 것은 아이가 싫어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잠깐 있다가 돌아다니고... 우리 사랑이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앉아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줌이 (접속도) 잘 안 되고... 이거 못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했거든요. (10. 1. 사랑의 어머니 심층면담)

(2)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는 매번 프로그램을 마칠 때 서로를 축복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가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경험하였다.

제가 아이를 못하게 하거나 떼를 쓰면 혼내는 경우라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안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아이에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아이를 안아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니까 처음에는 썩스러워 하고 도망가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10. 1. 사랑의 어머니 심층면담)

어제도 사랑이하고 싸웠거든요. 아이가 한 번 떼쓰기 시작하면 저도 같이 화를 내게 되고.... 아이 양육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모님하고 대화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소리 지르는 것이 덜해졌어요. 제가 변하니깐 아이가 확실히 밝아졌어요. 사촌도 사랑이가 더 밝아지고 표현하는 것도 더 풍부해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우리 ○○이는 축복하는 시간에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를 쓰다듬어요. 원래도 우리 아이가 엄마 껌딱지였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말하면서 쓰다듬어주고 하트를 날려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거예요. …중략… 저도 원래 아이를 칭찬하거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 아닌데…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3) 성경공부나 공과 활동은 좋으나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아 여전한 아쉬움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해서 참여하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을 때와는 다르게 부모도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유아 제자훈련이 주일예배에 대신 이것이라도 해야지 하는 느낌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아이도 즐거워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나아졌지만, 왠지 제자훈련이 예배는 아닌 것 같은 기분에 대해 말하였다.

성경이야기 듣고 활동이나 놀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천지창조…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신 거요. 잘 몰랐거든요. 순서도 정확히는 모르고, 또 베드로가 그냥 성격 급한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감정… 예수님을 배반한 감정도 좋았어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공부, 어렸을 때 공과 활동하는 기분이었어요. (9. 27. 믿음의 어머니 심층면담)

남편이 교회에 같이 안 가면 아이가 어리고 해서 저 혼자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라도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사랑이도 여기에서 언니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 못 가도 그래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니 이거라도 했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잘 앉아 있지 않으면 힘들고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도 돼서 좋은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하구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사모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전문가니까, 우리 아이는 차분한 편이라서 열심히 했어요. 아이도 즐거워 하고, 저랑도 관계가 좋아져서 표현도 잘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좀 덜 거룩한 거 같아요. 저도 동생이 울면 왔다갔다 하게 되고, 아이들이 내복 입고 예배드리는 게 어떤지 제가 교회다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2.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는 유아가 친구들과의 만남, 활동과 놀이 때문에 제자훈련 시간을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유아가 제자 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도습관이 형성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한 점과 잠깐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졌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친사회성 증진과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은 교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제자훈련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이유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과 놀이를 들었다.

우리 믿음이 이 시간을 기다려요. 너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이 시간이 되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놀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가 안 온 날은 ○○는 어디 갔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는 제자훈련에서 화면으로 친구들을 보면서 만들기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제가 읽어 주려고 했는데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들기 자료나 놀이감 주시잖아요. 성경동화 듣고, 활동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아이가 '이거 물감그림 그린 거잖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알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만든 거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거나 만들기 같은 게 있으니까 재미있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근데 오늘은 믿음이랑 친구들이 보이지 않네요. 소망이 혼자인가요? 아휴 소망이 아쉽겠네! 사랑이하고 아이들 귀엽다고 좋아하는데... (중략) 동생이 있어도 여기서 아이들 만나는 것 좋아해요. 오늘을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하자. (유아가 '○○하고 ○○이는 오늘 왜 안와요?' 라고 물어 진행자가 어머니께 전달받은 결석이유에 대해 설명해 줌) (소망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우리 사랑이는 아직 어려서 공부하는 것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도 제

자훈련을 하면서 화면으로 언니들을 만나는 것 보는 것을 좋아해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2)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 새 일상이 된 신앙 교육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기도습관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인지하였다. 유아가 과거에는 기도를 장난치듯이 했다면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알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된 점을 예로 들었다.

가장 좋은 점은 '기도'예요. 옛날에는 장난으로 '아멘'했다면 기도나 예배흐름을 알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이런 말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별거는 아닌데.. 자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중략) 기도도 옛날에는 (아이가) 딴 짓을 했는데, 저도 기도가 숙스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아이가 시간을 아는 거예요. 토요일 4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되면 TV를 끄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더라구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3) 조금씩 늘어난 감정표현과 잠깐은 할 수 있는 기다림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 중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점과 잠깐 동안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전하였다. 그 이유는 베드로, 잃은 양, 거북이 터커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 단어와 감정 조절의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소망이는 원래 숙스러움이 많아서 자신의 감정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동생한테도 말도 잘 안 하고 저를 봐요.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그럴까 걱정도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병풍처럼 생긴 베드로 책을 늘렸다 폼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림이요. 동생이 물건을 뺏으니까 거기로 가서 팔로 자기 머리 쓰다듬더라구요. 저는 좀 웃겼어요. (소망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조금 전에 시리얼하고 사탕 먹겠다고 막 떼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떼쓰느라 오늘 예배 참석 못했을 텐데요. 제가 두 개만 먹고 세 개는 식탁 위에 두었다가 나중에 먹자고 하니까 사탕 봉지를 달더라고요. (이야기 도중 유아가 식탁에 있는 사탕 세 개를 가지고 와서 먹음) 잃은 양 찾기 하면서 '니가 울면 엄마도 슬퍼'라고 했거든요. 제가 거북이 터커 얘기 잘 써먹어요. 그러면 잠깐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랑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4) 만남의 기회가 없어 실천이 어려운 친구 관련 활동들

유아의 친사회성 증진과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활동들은 실제로 교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친구에게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가정 내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도 있었지만 부모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만든 것 선물로 주니까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는 별 상관 안했는데 교회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번에 교회에 갔을 때, 방울(머리끈) 사랑이한테 준다고 했는데 사랑이가 안 와서 그냥 다시 가지고 왔어요. 못 만나니까 그 점이 아쉬워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슈퍼친구 망토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불빛 나오는 거 아직도 좋아해요. 동생 것도 챙겨 주셔서 감사해요. 집안에서 있었던 일 칭찬해 주기는 했는데, 이웃사랑 실천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가정에서 자기가 할 일은 더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친구 대신 고맙다고 말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사례를 소개하고 어머니의 참여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아의 기독교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가정 연계 온라인 지원체계 마련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 사례는 방법적 측면에서 가정이 교육의 장(context)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는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할 만하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여전한 아쉬움’으로 요약된다. 어머니는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담감과 화상회의 기반의 제자훈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자훈련을 실행 전 화상회의 플랫폼 접속을 위한 사전 연습의 시간을 가졌었으나, 이제는 사용법에 익숙해졌고 활용도 더욱 다양해졌다.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제자훈련은 본 연구를 실행한 교회와 같은 소규모의 교회에서도 활용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틀린 길이 아니라면 해답을 찾기 위해 어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권순웅 외, 2020: 152). 교회가 신앙의 계승을 위해 하이브리드 예배, 온라인 예배, 브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제자훈련 방법은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어머니는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남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반응을 미루어 볼 때 온라인상의 만남은 대면 예배를 대체할 만큼의 만남과 질적 교체,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예배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부모는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회는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절한 신앙교육 관련 활동을 제공해 주고, 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박은호, 2023 ; 임상훈, 2020 ; 정희정, 2020). 제자훈련의 참여한 어머니는 훈련의 전 과정에서 유아와 함께 활동과 놀이를 하였다. 또한 진행자는 자녀를 격려하기, 축복하기 등 바람직한 기독교적 상호작용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녀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였다.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을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유아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유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허계형, 2020). 그러므로 유아를 위한 기독교 교육은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여 유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의 패러다임이 교회의 부서 중심에서 가정 중심, 가족 중심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의 신앙교육 회복과 부모의 기독교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동영상과 활동 자료만을 제공할 경우, 부모의 신앙 정도와 실행

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 유아교육에서도 원격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어(이미정·신지연, 2020), 교회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명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박은호, 2023 ; 함영주, 2021). 또한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에서는 부모의 실행과 유아의 반응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마은희 외, 2020 ; 임상훈, 2020 ; 허계형, 2020). 본 연구는 교회와 가정의 상호작용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임상훈, 2020)에서 더 나아가 유아의 가정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교인들의 단독방과 블로그를 통한 격려와 피드백은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이 예배를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신앙적 양육기능을 담당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은 유아를 둔 가정에 대한 비대면 심방과 상담을 병행한 목회적 기능을 일부 감당하였다. 코로나 펜데믹은 목회 방법에 다양한 전환을 가져왔다(최동규, 2020). 예를 들면 비대면 심방이다.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은 물리적인 이동 없이 참여자의 일상 공간에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심방의 도구로도 유용하다(이동후, 2021 ; Ebner and Press, 2020). 제자훈련의 시작과 마무리에 근황과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가정의 이야기, 자녀양육과 관련한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며, 유아와 가정의 필요를 알게 되고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제자훈련에 참여한 부모가 고민을 나누고 마음이 편해졌으며, 자신의 변화가 아이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고백한 부모의 반응에서 확인된다.

둘째,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는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새 일상이 된 신앙교육’, ‘조금씩 늘어난 감정표현과 잠깐은 할 수 있는 기다림’, ‘만남의 기회가 없어 실천이 어려운 친구 관련 활동들’로 정리된다. 유아는 비록 화상회의에서지만 친구와의 만남과 교제,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활동과 놀이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친사회성 증진을 위한 활동과 이웃사랑의 실천은 교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경험 이야기를 통하여 감정표현이 적은 편이었던 유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마음을 진정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정 내에서 떼쓰기가 심하여 양육에 어려움이 있던 유아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을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도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중요한 변화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행한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이 있

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과 시대적 요구에 근거한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 장명립, 2017).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도록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허계형 2020: 105). 성경이야기가 유아의 신앙과 사회정서인성 발달을 촉진하는 유용한 자료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송영란·오영희, 2006 ; 이지영·이유나, 2016 ; 권정해·신인숙, 2011 ; 박수진·김미경, 2013 ; 김성원·신현정, 2018)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의 핵심요소를 담고 있는 성경이야기 9편으로 구성된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성경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통해 익숙해지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2과를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지만, 유아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놀이처럼 즐기는 예배도 어린 유아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 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만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6과에서는 기독교 정서발달을 위해 정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정서표현 및 조절을 다루었다. 감정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진정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떼쓰기 행동이 심했던 유아는 잠시나마 기다릴 수 있게 된 점은 기독교 정서발달을 지원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정서발달이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마은희 외, 2020 ; 박은호, 2023 ; 임상훈, 2020 ; 정희정, 2020 ; 함영주, 2021), 어머니의 부정적 언어 사용의 감소와 축복의 언어 및 스킴의 증가가 유아의 기독교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7-9과에서 제시된 기독교 사회성 발달, 미래사회 리더십의 요소는 실천을 통해 익숙해지고 내면화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친구들과 이웃과의 만남이 제한된 단기간의 제자훈련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의 질적인 교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와 가정을 위한 지원은 양방향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삶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도록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전략과 사례를 제시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히며 후

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경기도 소재의 한 소형교회의 사례와 연구 대상이 극소수라는 점으로 인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된 시기에 진행된 연구로 비대면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 등을 활용한 자료수집이라는 방법적 제한점이 있다. 셋째, 연구자와 제자훈련의 실행자가 동일인으로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교회와 배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는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유아의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의 함양과 부모의 기독교적 양육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참 고 문 헌

- 강성국·김은영·장혜승·황준성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 전략과 과제.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7-310.
- 강용원 (2013). 주일학교운동의 역사적 발전과 과제. **고신신학**, 193-227.
-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 권미량·하연희·계영희 (2018).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신앙과 학문**, 23(2), 5-27.
- 권순웅·김수환·라영환·방성일·유은희·함영주·허계형 (2020).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경기 부천: 들음과 봄
- 권정해·신인숙 (2011).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학논집**, 37, 111-130.
- 김성원·신현정 (2018). 성경 이야기를 통한 가정 연계 유아 성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58, 165-198.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 논총**, 67, 11-44,
- 마은희·김남임·김소희·허계형 (2020). 코로나 시대 웹 (web) 기반 유아-부모 세대통합 예배 전략과 실제: 기독교 유아사회정서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6, 197-220.
- 박노선·함영주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교회학교 신앙교육프로그램 설계. **기독교교육정보**, 76, 233-266.
- 박수진·김미경 (2013). 성경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8, 165-188.
- 송영란·오영희 (2006).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신앙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6(6), 175-199.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자료집**, 22-24.
- 오영희·정미 (2009). 성경 이야기 극화활동이 유아의 신앙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문논총**, 26, 123-149
- 오현주·홍경화 (2021). 코로나 19 시대의 온라인 어린이 예배에 대한 연구: 실시간 쌍방향 화상 예배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70, 137-169.
- 이광수·함영주 (2018). 세대통합예배의 활성화를 위한 가정예배의 회복. **신학과 선교**, 53, 205-242.
- 이동후 (2021). 코로나 19시대의 디지털 교실에 관한 미디어 생태학적 탐구 : 줌이 매개한 비대면 교실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2), 98-130.

- 이미정·신지연 (2020). 유치원 원격수업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실행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5), 277-302.
- 이수인·최솔 (202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회교육 현황 연구 : 교회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8, 443-468.
- 이지영·이유나 (2016). 성경동화를 활용한 오감성경놀이 활동이 유아의 기독교 개념과 종교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1), 343-366.
- 임상훈 (2020).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동영상 콘텐츠 및 SNS를 활용한 영유아 상호작용 활동 연구: 유튜브 브와 카카오톡채널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7, 299-333.
- 장명립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61-79.
- 정선희 역 (2007).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Rushdoony, M. R. (2001). *The philosophy of the Christian Curriculum*.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 정희영 (2010). **기독교 유아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 정희영·이정규·한민자 (2014).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추출. **기독교교육논총**, 26, 195-217.
- 정희영·진명선 (201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신앙교육교재 활용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55, 183-212.
- 정희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유아교육 방향 모색. **성경과 신학**, 95, 147-172.
- 정희정·김남임 (2013). 기독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4), 113-138.
- 조혜정 (2020).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학부모의 신앙성숙이 사회 회피 및 불안(SAD)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정보**, 65, 57-85.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최동규 (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52, 171-200.
- 함영주 (2021). 코로나 19 이후 통계로 보는 교회교육의 미래.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6-48.
- 허계형 (2020).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허계형·손병덕·김소희·마은희·김남임 (2021). **우리가족 신앙습관을 만드는 67일 프로젝트 빛을 담은 부모 빛이 되는 아이**. 서울: 라이트교육.
- 허계형·손병덕·김남임·마은희·김소희·정양권 (2021).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 빛이 되어라**. 서울: 라이트교육.
- Ebner, N. & Press, S. (2020). *Pandemic pedagogy II: Conducting Simulations and Role Plays in Online, Video-Based, Synchronous Courses*.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303 (검색일 2021.10.5)

- Takeuchi, L. M. (2011). *Families Matter: Designing Media for a Digital Age*. New York, NY: The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https://joanganzcooneycenter.org/publication/families-matter-designing-media-for-a-digital-age> (검색일 2021.5.20.)
- 기독교신문 2022. 1. 26일자 “교회학교 교육패러다임 전환 절실, 존재 위기에 내몰린 교회가 늘고 있다” <http://gdknews.kr/news/view.php?no=11870> (검색일 2024.1.30.)
- 기독신문 2020. 12. 1일자. “위기의 다음세대 교육, 부모교육 병행하며 적극 투자로 극복하라”.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89>. (검색일 2021.9.8.)
- 카스펠 투데이. 2020. 5. 28일자.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격차, 작은 교회 교회학교 위협”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9> (검색일 2021.9.8.)
- 국민일보 2021. 2. 23일자. “교회 10곳 중 2곳 주일학교 운영 못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582&code=23111111&sid1=hon/feed>(검색일 2021.10.1.)
- 뉴스앤조이 2020. 4. 21 일자. “코로나 19,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① 아이들 교회 규모 따라 대응 천지 차이...아예 손 놓은 교회도”.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4>.(검색일 2021.9.8.)
- 넘버즈 2022. 5. 31일자. “기독교 통계(143호)-포스트 코로나시대 교회학교 전략 방향”,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7 (검색일 2024.1.30.)
- 넘버즈 2022. 5. 31일자. “기독교 통계(146호)-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4차) 결과”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 (검색일 2024.1.30.)
- 넘버즈 2024. 2. 20일자.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72%까지 늘어!”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0 (검색일 2024.2.29.)
- 신미영 (2022). ‘위드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하이브리드’ 교회 교육으로 살린다. 신앙과 삶, 2022년 5-6월호.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805/4813> (검색일 2024.1.30.)
- 기독신문 2023. 5. 11일자. “온 가족 예배와 동역화”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46> (검색일 2024.1.30.)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활용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Mothers Attending a Zoom-based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Using the Bible story about Social-emotional Character

마은희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A교회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어머니 3명이다.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모형에 기초한 9편의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유아가 성경이야기를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내면화하도록 놀이와 활동으로 구성하여 28주 동안 실행하였다. 자료는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는 '예배의 대안이지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을 경험하였다. 어머니가 바라본 유아의 경험은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새 일상이 된 신앙교육', '조금씩 늘어난 감정표현과 잠깐은 할 수 있는 기다림', '만남의 기회가 없어 실천이 어려운 친구 관련 활동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의 지원 가능성,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유아 제자훈련, 성경이야기, 실시간 화상회의, 포스트 코로나